차준희 교수의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8강 밀양의 영성

예레미야 29장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문제를 중심주제로 취급하는 26-28장을 마감하는 종결장이면서 동시에 30-31장의 희망선포를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한다. 예레미야 29장은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에 오고 간 편지로 구성된 길고 긴 산문체 단락이다. 이 편지는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진 최초의 메시지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네 통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1) 1-14절(21-23절):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2) 24절: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편지의 주요 본문이 잘려 나가서 흔적만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편지)
(3) 25-28절: 바벨론의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
(4) 31-32절: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또 하나의 추가적인 편지

1. 새 시대, 새 신앙(렘 29:1-7)
1) 머리말(1-3절)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7절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본문은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냈는지를 자세히 밝히는 1-3절의 긴 머리말로 시작한다. 1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 이는 이전 장인 예레미야 28장과 연속된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은 1절에서 "시드기야 즉위 한 지 4년"이라는 시기를 보여준다. 이 시기는 주전 595/594년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레미야 29장의 편지는 주전 595/4년에 쓰여 졌을 것이다. 또한 예레미야 29장의 도입부(1-2절)는 주전 597년의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가리킨다(참조. 왕하 24:8-16).

> "1)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 그 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렘 29:1-2).

그 기간 동안에는 바벨론제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아마도 바벨론의 불안한 내정은 바벨론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 가운데 조기 송환에 대한 설익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편지가 우선 장로들을 수취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가 특정 지역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옛 마을 체제를 유지했음을 알려준다.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장로들에 의한 그들 자신들의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 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겔 8:1; 참조. 겔 14:1).

따라서 촌락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예언자의 대화상대자가 되는 것은 당연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로는 원래 가족의 수장(守長)이거나 씨족의 수장으로서 왕정수립 이전에는 공식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왕정수립 이후에도 그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17)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렘 26:17-19; 참조. 왕상 20:7; 왕하 23:1).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감옥에 집단수용된 것도 아니었고,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지도 않았고, 또 노예로 모두 팔린 것도 아니었다. 대신에 그들은 아주 긴밀하게 결속된 공동체, 즉 유다 자치구를 이루며 살았고, 그들의 고국과 정기적인 서신왕래와 연락도 유지할 수도 있었다.

열왕기하 22장에 따르면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절 고위급 관리였던 서기관 사반과 제사장인 힐기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왕하 22:12).

그들은 유다왕조가 몰락해 가는 시기에 야웨신앙에 기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들로 보인다. 이들 가문들은 이러한 그들의 기본적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예언자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긍정적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요시야가 전사한 이후 여호야김(주전 608-597년)이 통치하던 시절에도 예레미야에 대한 왕의 추궁에 거역하면서까지 예레미야를 보호했고, 예언자의 편에 서 주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렘 26:24).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사반의 아들]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렘 36:25).

그들은 고위층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정치적으로 본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친 바벨론적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들의 후손들은 바벨론 1차 침공(주전 597년) 당시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상류층들이 모두 유배당하는 상황에서 포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을 것이다(참조. 왕하 24:10-17). 또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몰락하는 주전 587년 사건 이후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사반의 손자인 그달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렘 40:7).

이러한 맥락에서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의 설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바벨론의 지배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3절이 느브갓네살에게 보낸 사신과 예레미야의 편지의 전달자로 친(親)바벨론 인사인 서기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된다.

>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렘 29:3).

그들은 어쩌면 서방의 소국가들과 함께 반란을 계획했다가 무위로 끝나고 말아버린 사건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고(참조. 렘 27장), 느부갓네살에 대한 시드기야의 충성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기 위해 파견되었을 것이다.

2) 편지 내용(4-7절)

당시 유다 백성들의 민간 신앙적 관점에 따르면 바벨론의 승리는 곧 야웨의 패배와 맞물려 있다. 부정한 이방 땅에 체류하는 것은 동시에 일상의 생활을 이끌어주고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예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모든 일상생활의 근저(根底)에는 야웨 하나님에 대한 제의가 뿌리 깊게 결부되어 있다.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후손을 낳는 것은 야웨의 복이 담보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일들은 부정한 땅에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영토는 부정한 땅으로 간주되었다.

>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암 7:17; 호 9:1-6).

유다인들이 야웨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淨)하여야 하고 음식규정도 준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이방의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13)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

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14)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겔 4:13-14).

또한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야웨의 현존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현존하시는지 확실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포로들은 다양하게 반응하였다. 1) 야웨를 등지고 보다 강한 이방신들을 향하여 배교하기도 하고(겔 14:3), 2)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겔 18:2; 33:10), 3) 맹목적이고 오도(誤導)된 믿음에 광신적으로 몰입하기도 하였다(겔 13:1-16; 렘 28:1-4).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놓인 유다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진 최초의 편지가 오늘의 본문이다. 먼저 4절은 역사의 실질적인 주관자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야웨이심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렘 29:4).

이어지는 5-7절은 예레미야의 실질적인 편지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5)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5-7).

예레미야는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여 번성을 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마디로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꿈을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으라는 것이다(5-6절). 예레미야는 장기체류의 대비와 헛된 기대의 포기를 종용한다. 또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자신의 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한다(7절).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였고, 예루살렘 도시를 정복하고, 유다의 왕과 지도층들을 유배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중보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미워하는 이방의 강대국을 위해 간구하라는 명령은 당시의 문헌에는 그 유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예언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도 야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놀라운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의심 없이 받아들여 온 야웨와 성전 및 제의와의 단단한 배타적인 결합이 끊어지고, 이방 땅에서도 야웨와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즉 야웨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전통신앙에 새로운 신앙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포로들에게 중보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야웨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

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야웨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완전한 변혁을 요구한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은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예언자의 신앙은 포로에 처한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지배자가 평안해야 피지배자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2).

그러나 예레미야의 확신은 사실 이러한 실용주의와 현실주의를 넘어서고 있다. 그의 확고한 명령형은 이 약하고 작은 유다공동체에게 뜻밖의 '선교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열방의 선지자"(A Prophet to the Nations)인 예레미야(렘 1:5)는 동족 유다가 이방나라에서 "이방의 빛"(A Light to the Nations, 사 49:6)으로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작은 공동체는 포로로 끌려오는 방식으로 제국의 보다 넓은 세계로 초대된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했던 예레미야는 이러한 역사이해로 포로공동체가 자신만의 안위와 분파적인 생존만을 위하는 소극적 태도로 움츠려드는 것을 방지하고, 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깨닫게 한다. 새 시대에는 새 신앙이 필요하다.

2. 희망의 배움터인 포로지(렘 29:8-14)

1)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8-9절)

이어지는 본문인 8-9절과 10-14절은 각기 독립된 이야기로 다루어질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한 단락으로 묶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8-9절은 바벨론에 있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10-14절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사람들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그들을 본국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

바벨론에 있는 예언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언자들과 매한가지였다.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의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가 판치고 있었다.

> "8)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9)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29:8-9).

이들은 점을 치고 꿈을 꾸는 자들의 집단이었다. 이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조기에 귀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허황된 꿈을 유포하고 있었을 것이다(8절). 예레미야는 유다와 바벨론에서 활개치고 있는 구원을 약속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하나님과 무관한 거짓 예언임을 폭로

하고 엄중히 경계한다(9절). 하나님의 뜻은 당시 백성들이 열망했던 조기송환이 아니었다.

2) 70년 이후의 구원(10-14절)

예레미야 29:10-14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도 깊은 회복 선포 가운데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차면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공표(公表)한다.

>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

여기서 '70년'이란 2-3세대에 해당되는 기간으로(렘 27:7),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간과 맞먹는 대략적인 수치로 보인다. 즉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한 주전 605년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합병된 539년까지 계산하면 약 66년이 된다. 바벨론 제국이 태동하는 시점에서 그 제국의 생명력이 70년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미리 예견한 예레미야의 통찰력이 놀랍기만 하다. 10절의 구원선포는 예언자적 전망의 분명한 변화를 드러낸다. 이 구원선포는 완전히 변화된 야웨의 의지를 보여준다.

> "야웨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11절).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급반전이 포착된다. 물론 이 확신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쳤던 예레미야의 심판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심판을 넘어선 이후에 펼쳐질 야웨의 최종적인 해결책을 확신하는 것이다. 10절에 언급된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는 예레미야 메시지 전체를 형성하는 두 가지 근본구조이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심판이 주종을 이루지만 심판이 마지막은 아니다. 심판 이후의 구원이 예언자의 궁극적인 메시지이다(참조. 렘 1:10). 예레미야의 구원선포는 심판을 경험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는 전제가 선행된다는 점에서 하나냐의 구원선포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파격은 계속 이어진다.

>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 이요
>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12-13절).

여기서 "너희의 온 마음"(콜-르바브켐)이란 본래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지와 힘을 다하여' 혹은 '전심으로'(all your heart)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을 향한 남김 없는 헌신을 가리키는 이러한 배타성은 신명기신앙의 특징이기도 하다.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신 6:5; 참조. 신 13:3).

야웨는 완전히 혹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원하신다. 이러한 사람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시도가 헛되고(암 8:12; 호 5:6), 예언자의 중보기도 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는(렘 7:16; 11:14; 14:11) 포로기 이전 예언자의 심판메시지는 이제 그 심판이 실현된 이후 포기된다. 이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로지 야웨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된다.

> "이것은 야웨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웨의 말씀이니라"(14절).

여기에서 '만날 것이며'['만나지리라'라는 우리말 개역 개정 이전의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다]로 옮긴 히브리 동사는 재귀형(再歸刑)이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만남의 대상이 되도록 내놓으신다는 뜻을 지닌다.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미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일어난 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언급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공로(功勞)로 인한 것이라는 언급도 없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선행(先行)적인 다가감이 인간의 하나님으로의 다가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서로를 향한 다가감은 동시에 구원의 상승작용(Synergismus)을 가능케 한다. 14절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라는 구절은 이 말씀이 바벨론의 디아스포라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다 디아스포라(diaspora)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단락(10-14절)의 핵심은 예레미야가 포로들의 조기 송환과 고향과 전토와 재산의 조기 회복을 예언하는 거짓된 낙관주의를 분쇄하는 데 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과 구원의 확신은 유치한 애국심과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력을 신속하게 궤멸시키고 유다의 포로들을 빠른 시간 안에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들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현재에 경험되는 바벨론의 통치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용기 위에 구축된다. 결과적으로 유다 포로들은 이방 땅에서의 포로 살이 상황에 적응했어야 했으며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다. 냉혹하고 위협적인 포로 살이 동안의 기다림과 생존 기간은 영적 연단의 세월들이요 회개의 기회가 되도록 예정되었다. 영적인 연단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약에서 포로의 고난은 하나님의 희망이 가장 강력하고도 특징적으로 작동하는 모체(母體)가 된다. 포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심오하고 새롭게 실현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포로들은 일단 현실을 수용하고 일정기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 자숙의 삶과 지속적인 경건에 더 몰두해야 한다. 더 나아가 포로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재정립해야 한다.

>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

포로지는 희망이 동터 오르는 곳이며, 희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곳이다.

나가는 말

1. 인생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4절).

역사의 절대주권자는 야웨 하나님 한분 밖에 없다. 포로지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과 우연의 결과로 보인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내재되어 있는 법이다.

2. 포로지가 선교지이다(7-8절).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이 부정한 땅만은 아니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장소가 아니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곳이며, 억압자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곳이 아니라 그들도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이다. 이때부터 포로민은 선교사가 된다. 바벨론은 유배지가 아니라 선교지였고, 그들은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 곳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인도하신 선교지이다.

3. 선교지는 희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곳이다(11-14절).

포로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일정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정체성은 유배자가 아니라 선교자이다. 그리고 자숙의 삶과 지속적인 경건에 집중해야 한다.

orientation(안정)-> disorientation(불안정)->reorientation(재 안정)

삶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견뎌 낼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제야 인간은 삶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햇볕', 즉 밀양(密陽)을 만날지도 모른다.

>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시 40:1).